

경기총 대표회장 임다윗 목사 취임

임 목사 1만 5천 교회, 350만 성도를 섬기겠다고 다짐

지난 12월 5일(주일) 경기도 파주의 흥남한교회는 (사)경기기도교육총연합회 이하 경기총의 제34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경기도의 1만 5천 교회, 350만 명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에는 흥남한교회 임다윗 목사가 총회를 통해 선출되어 취임식을 가지기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경기총의 임원들과 파주지역 목회자, 그리고 정치권의 인사들과 흥남한교회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임다윗 목사는 취임사에서 "정경 말씀대로마 10:10 빌들기처럼 순결하여, 순결과 겸손과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력으로 경기총을 섬길 것이며, 땀과 땀 흘리며 하여 경기총을 굳게 세울 것이고, 사기처럼 용감하게 전진할 자는 태에도 주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예배와 제2부 취임식



으로 진행되어 제1부 예배는 제1수석상임회장인 유만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상임회장 신상철 목사의 기도, 권해주 목사의 성경봉독 후에 테너 박대현 교수의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교회총연합회 직전 대표와 경기총 총회장임과 사제대교회 담임인 소강석 목사가 '고백하는 자는 아무'라는 제목으로 성도였다. 이어 총회장 김수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취임식에서는 제1수석상임회장 오병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서기 민선기 목사의 대표회장 약력 소개와 임다윗 목사의 취임사, 최종환 과주사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더불어 임다윗 취임식 대정부의 인사발령 대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사발령 대독이 있었고, 정영담 신상철 대선 후보의 인사발령과 직전대표회장 고영진 목사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제17회 남·북 복음통일기도회 개최

남북복음통일 위해 기도의 불길 일으킨다

남·북 조찬기도회(대표회장 김윤기 목사)는 지난 12월 11일(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제17회 남·북 통일기도회를 갖고 이 땅에 진정한 복음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대표회장 김윤기 목사의 사회로 이광복 목사(가림 전 감리사)의 대표기도, 정학영 장로(영광전교회 이사장)·안성태 목사(예장통합연맹총회 총무)의 신·구약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목사(가림 전 감리회장은)는 마 5:9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평화의 도'로 쓰임 받은 '가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독일 통일 중심에는 니콜라이교회라는 독일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에서 성직자와 성도들이 모여 7년간 독일 통일을 위해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통일이 되었다"고 말하고, "진정



한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을 남북조찬기도회가 거세게 불어 넣어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대표회장 김윤기 목사(한교연 상임회장)는 대회사로 통해 '남북교회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가 이제는 통일이 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남북조찬기도회가 기도회 통해 통일의 불길을 일으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계속해 김광현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사회와 민족과 통일, 정창구 성도(교단외인민연합 대표)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특별기도를 한 후 송대성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문세광 목사는 퇴직사제단 대표회장의 격려사, 영광수 목사(국교로소전학술원장)·경원수 목사(예장총회) 중경회장사 축사를 했다.

평신도지도자협,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 등 임원진 취임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는 지난 12월 10일(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를 비롯한 임원진을 모두 선임했다.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천한 뜻을 이루기 위해 더 겸손히 머숙하여 기도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불씨가 되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

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 1부 예배는 공동회장 도대균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목사가 사 26: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너희는 여호와를 열망하' 신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으며, 정영연 직전회장 이철환 장로·바이블이카데미 총동맹회장 김우신 장로·한기연 대표회장 신영식 장로가 격려사를 했다.

최광원 목사의 축도에 이어 2부 회무처리에는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의 사회로 총회장 김형원 장로의 개회기도, 회헌정경, 개회선언, 회수처리, 회헌의책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회수처리에는 계속해서 사업 및 정경보고를 비롯한 모든 보고를 유인물로 받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임원진을 선임했다. 평신도지도자협회는 제33회기 사업으로 교도소 유망, 전일제(아침예배), 군부대 전중세례식 및 잔류, 구국기도회 및 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회개정안에 있어서는 제33회(임원), 제33회(임원)의 임무, 제33회(임원)의 선거, 제41조(인기) 등과 제33회 정기총회 간에 개정을 만장일치(유인물)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의 모든 순서는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기독교원로목사회, 제10회 선교대상 시상식

김성만·김기범 목사, 홍순관 상무 등 수상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김동원 목사)이 하 한림목사는 지난 12월 10일(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목회발전 사회에서 제10회 선교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주주 목사(대상 선정위원) 사회로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의 개회사, 권기삼 목사(대상 선정위원)의 기도, 김동원 목사의 사 40:3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여호와를 영감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주 목사(대상 선정위원)가 수상자를 발표하고 후 선교대상에 김성만 목사와 기로선교회 회장인 기독교원로목사회에 홍순관 목사(여수시목회)를, 여수목회사 대상에 김기범 목사(영광교회 원로목사)를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김성만 목사는 "선교대상을 하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린다"라며, "원로목사님들의 기도의 부름으로 이 나라가 1천여만 성도까지 부를 수 있었다. 앞으로 한림목회

일취월장해서 한국교회에 큰 바둑돌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한림목회는 '도르'를 통하여 사정으로 인해 선교대상 시상식이 제33회 때에 정하고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라며, "비록 조촐하게라도 다시 10회 시상식이 이뤄져서 감사하다. 훌륭한 수장자분들을 모시기 되어 큰 영광으로 삼아주고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유주원 목사(대상 선정위원)의 축사 후 한림목회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림목회는 시상식 이후 같은 자리에서 총회를 열고 제2대 선교대상으로 김동원 목사(선교회)를, 중경회장을, 한기총 명예회장을 선출했다.

한교연, 예원바이블창조위원회와 업무협약

경기도 포천지역 32만명에 영화관 테마별 공원과 숙박시설, 국제학교 건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대(한교연) 송대성 목사는 지난 12월 9일(목) 한교연 사무실에서 예원바이블창조위원회(총재 송진호 장로, 대표 김상욱 목사)와 국제 바이블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개수 목사(주총장의 친형으로 시작된 한교연에서 바이블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송진호 장로(바리새)를 시리 월드 총재는 "성경 땅 밟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성서사경 가장 좋은 교육적 방법을 더 연구하여 후손들에게 믿음의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면서 "이들 위해 성경에 나타난 각종 기적적인 상징물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테마공원을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대성 목사는 "국내에서 바이블랜드의 설립은 하나님께 기뻐할 일"



이라며,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라면서 "하나님 이역사하시어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되어 복을 얻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 지역 32만명에 조성될 바이블랜드는 각종 영화관과 테마별 공원과 숙박시설, 국제학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3~5년으로 잡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 성탄트리 점등식

국회환경미화원에게 쌀 220포대도 전달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는 지난 12월 9일(수) 오후 6시 '2021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 감사예배'를 불국사 대웅전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들의 기도회를 가졌다. 성경봉독은 최영환 의원(국민의당)이 맡아 여의도의 한미음으로 중앙여성전연회와 국회조찬기도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점등식을 진행했다. 특별기도 순서를 맡은 송석준 의원(국민의당)은 나라를 위하여란 주제로,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위하여' 사경송 의원(국민의당)의 한미음으로 중앙여성전연회와 국회조찬기도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마 29:12 말씀을 본문으로 '동행박사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더욱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시선을 돌려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국가가 되어 국민에게 소명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점등식은 중앙여성전연회의 송혜의 권영과 함께 고명진 목사(한교연) 목사(한교연)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기도회로 이어졌다. '국회조찬기도회'의 기도회로 이어졌다. '국회조찬기도회'의 기도회로 이어졌다.

박영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우리와 우리 나라의 전국에 펼쳐져 우리 정치의 대의와 갈등을 대하고 타협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장합동선목, 성탄축하예배드려

글로벌선교위원 선교교전대회도 함께



대한예수교전교회(합동선목총회) 총회장 김국경 목사는 지난 12월 9일(목) 오후 6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성탄축하예배 및 선교교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성탄축하예배는 총회신학교 총동맹회장 김대현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이병태 목사의 기도, 총회합동단의 찬양, 총회장 김국경 목사의 사 6:8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자의 신의고백'이란 제목의 설교,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선교교전대회는 총무 유인기 목사의 사회로 이형수 목사의 기도, 안영모 목사의 교회의 선교비전을 담은 선언문 낭독에 이어 마지르하고 회도를 위한 후회권 전담기도가 있었다. 총회는 이날 총회신학교 총동맹회장 정경호 박사에게 회도 발령이 가하여 공로에 수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와 함께 마이크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총회·총회신학교 총동맹회·재학생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 속에 성탄축하행사가 진행됐다.

노인복지협, 제249회 조찬기도회

2022년년 조찬기도회는 오는 1월 14일

한글날인 1월 14일(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제249회 남·북 통일기도회를 갖고 이 땅에 진정한 복음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합동회의 목사(조찬기도회 연합회장)의 사회로 김일삼 목사(영광교회)의 기도에 이어 김진호 목사(가림 전 감리회장은)는 마 5:9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평화의 도'로 쓰임 받은 '가림'이라는 제목의 설교, 이광수 목사(예장통합연맹총회 총무)의 신·구약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주재박사 및 토의시간은 대표회장 조지현 목사의 사회로 김기범 사인의 사경송,



지부장, 이만희 전 행정부관공의 격려사가 있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부지방회



서울중부지방회



서울동부지방회



서울남부지방회



경기도지방회



충청남도지방회



경기도지방회



경기도지방회



경기도지방회



경기도지방회



인천지방회



경기도지방회



경기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임산지방회



김포지방회



인천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강원지방회



대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경남지방회



경기도지방회



충청북도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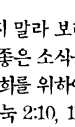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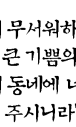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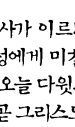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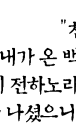
부산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 11)

홈페이지: www.ucts.org

2022학년도

예수 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
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www.ucts.org

2022학년도

예수 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
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전차 한교파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라
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호

- 말씀중심, 성령충만:
- 목양인성: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기독교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여 교단 목사로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
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GS리테일과 북드림 해피스타트 실시

기아대책 "아이들이 배우고 꿈꿀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후원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아스리테일과 함께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2021 GS SHOP 북드림해피스타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북드림해피스타트'는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의 취학에 따른 학습을 개선하고 독서환경을 돕기 위해 지아스리테일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올해는 10만 이상 사회공헌 포인트를 기부하고 있는 기아대책과 지아스리테일이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 기부 ▲독서 프로그램 ▲도서 및 학습용품 지원 총 네 가지 부문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양사는 먼저 서울과 수도권에 지역아동센터 등 5개소를 선정해 센터 내 도서관 개보수를 진행한다. 나무된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필요 설비를 구비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마련한다.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독서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하기 학습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서 마련을 위해 지아스리테일 임직원 및 고객들이 함께하는 후원전 도서기부 '북드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도 함께 진행한다. 도서 기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GS25 및 GS THE FRESH 일부 매장 접수와 택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배송 혜택과 사서지를 제공한다. 도서 기부자에게는 모바일 증정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사는 영등포구 내 저소득 가정 지원하는 '2021 GS SHOP 저소득 가정 장학금 리얼러브 장학금' 사업도 추진한다. 기아대책과 지아스리테일은 올해 리얼러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저소득 청소년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등포구 관내 고등학교 중 10교를 선정해 인당 100만 원과 필요한 학습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원식 회장전구 기아대책 회장은 "아이들이 계속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이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한 뜻을 실천하는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 고양지회 창립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식 화은교회에서 진행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지회 창립 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식이 화은교회에서 2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주례를 맡은 박영수 목사는 "월드비전 고양지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통해 창립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목사는 "월드비전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창립 5주년 기념식은 창립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월드비전'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박영수 목사는 "월드비전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창립 5주년 기념식은 창립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월드비전'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박영수 목사는 "월드비전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창립 5주년 기념식은 창립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월드비전'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박영수 목사는 "월드비전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창립 5주년 기념식은 창립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월드비전'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박영수 목사는 "월드비전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창립 5주년 기념식은 창립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세터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소복교회, 가족세터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터전도 부흥집회를 마치고

10일 중순에 박영수 목사의 아이기회를 처음으로 전 해 들었다. 집회를 열고 전도하면 코로나19로 정체를 고쳐 분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 해를 하고 했다. 나에게 꼭 나와서 보고 도전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세 빛산교회 가족세터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18년 전 전도에 불발됐을 때가 기억났다. 그때는 바에에서도 전도하고 자취할 안에서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었다.

그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른 것 같았다. 박영수 목사는 "가족세터전도 집회 없이 마다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사한다. 코로나19가 거절할 만도 한데 사람들은 거부반응도 없이 영접기도를 따라 했다. 아주 분부장은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이 없어서 참석했다. 아주 분부장은 집회를 열면 재정은 채워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했다. 그래서 소복교회에 아범주교회에서도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도지가 도착했다. 집회일은 이번엔 전도지를 어떻게 배포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영수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국민일보에 전화하면 와서 가져가서 신문에 끼워서 배포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전사 목사로부터 마스크가 1박스가 도착해서 전도하는데 쓰라고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드디어 집회일이 되었다. 집회가 끝나고 전도했다. 나 가서 영접기도하고 교회를 작성한 가정이 두 가정이었다. 한 가정은 13년 동안 전도하러 갈 때마다 미루다 지어 회했다. 1년 사립이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가 같이 가자고 갑자기 순환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사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왔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교회가 살아나려면 전도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박영수 목사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노아의 방주교회 최준근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터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6730-2573

평내소복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성탄절 사랑의 밥나눔과 선물 전달식

기감 남선교회경기연 해돋는마을 월드뷰티한즈

기감 남선교회경기연회장(회장 이종택 장로)이 주선하고 (사)해돋는마을이장장 장한일 목사(사)월드뷰티한즈회장 최애선 사원대 교수가 주관해 '성탄절 사랑의 밥나눔과 선물 전달식'을 12월 15일(수) 진행했다. 이들은 즉발성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나눔 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전달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

이날 해돋는마을이장장 장한일 목사(신원교회)를 비롯해 기감 남선교회경기연회장 이종택 장로와 총무 임원진 장로가 참석해 사랑의 대채식을 전달했다.

밥나눔 행사에 참여한 연합회장 이종택 장로는 "코로나19로 심각 상황이지만 위롭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랑의 밥나눔 대채식을 드려서 영육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랐다"며 격려했다.

해돋는마을이장장 장한일 목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주일 분량의 대채식을 헌납하고 있도록 분담해 전달하고 있으며 겨울철 불행한 예기 방해를 드린다"며 "해돋는마을이장장 남선교회



회경기연회장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돕는 손길로 월드뷰티한즈 장한일 사무총장, 최애선 사무총장, 최세진 영양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섬겼다. 이날 밥나눔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의 의미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이날 밥나눔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의 의미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월드뷰티한즈 장한일 사무총장, 최세진 사무총장, 최세진 영양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섬겼다. 이날 밥나눔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의 의미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이날 밥나눔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의 의미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배우 남보라,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지원 캠페인에 물품 후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수연)는 배우 남보라가 미혼한부모 지원 캠페인 'MOM IS WOW'에 '두하스 핸드 세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후원한 제품은 '두하스 핸드 세제'로 배우 남보라가 1년간 개관해 직접 참여한 제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제품이다.

한편 미혼한부모 지원 캠페인 'MOM IS WOW'는 어 한 번의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두하스 핸드 세제'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후원한 제품은 '두하스 핸드 세제'로 배우 남보라가 1년간 개관해 직접 참여한 제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제품이다.

한편 미혼한부모 지원 캠페인 'MOM IS WOW'는 어 한 번의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두하스 핸드 세제'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후원한 제품은 '두하스 핸드 세제'로 배우 남보라가 1년간 개관해 직접 참여한 제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제품이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연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맛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가글 예방 7. 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erbet.com

상담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초대사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신앙고백



내가 구원받던 그날
'죽어야 산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던 날
죄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던 그날...
그 진리 말씀이 생명 되어 내게 증거하고
날 새롭게 하셨으니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나...
죽었던 영이 회복되니 순간순간 살아있음!
산제사가 아니고 무엇이라...
택함 받은 은혜 한량없건만
수많은 언약을 내게 주면서
주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어찌 이 기쁨을 선포하지 않을까!

원하고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새로운 이 아침...
구속함을 받은 나도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가!

성령님 보내사 영만 열여주시고
참 목자의 음성들 듣게 하시며
별별 날아드는 메마른 광야 지날 때
보혈로 덮으사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어찌 이 은혜 찬양지 않을가!~

말씀을 삼고하며 마음을 고백하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참 사랑이라

켄터키주 태풍 생존자 “아내가 기도하며 포기 말라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 언급 켄터키주 메이필드시, 토네이도, 태풍

10일 밤이후 한자시각부터 11일 오전까지 아칸소, 앨라배마,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테네시주 등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 최소 50명의 태풍이 몰아쳐, 약 100명의 사망자와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정적인 피해도 컸다.

CBS뉴스에 따르면, 켄터키 메이필드시의 마이크 섀튼(37)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태풍의 전례로 메이필드 컨슈머 프러덕트 공장에 갇혀서, 곧바로 아내 코트니(38)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코트니는

AT통신사의 인터뷰에서 “전화를 걸어 온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오, 주님, 그가 나를 구할까요?’ 정말 두려웠다. 그래서 전화를 들고 기도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을 수 있을 것이지. 한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고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마이크와 그의 사촌인 쿼트 다일스는 역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일스는 교정 직원으로서 공장의 직원들을 감

독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이크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제게 해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을 보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그는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태풍이 강하고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회오리바람을 보고는 도망쳤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태풍과 콘크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벽이 터졌다. 모두 달리기 시작했고, 난 그냥 땅에 엎드렸다. 태이 같은 자세로 있었고 콘크리트 판이 내 위에 떨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코트니 역시 태풍으로 지붕이 뜯기는 동안 옆의 아이들과 함께 쪽죽음이 있었다. 코트니는 “갑을 막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난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은 인부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모델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를 위해 오셨다. 이를 이루시고자 구원을 탄생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 희생하셨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룩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행위가 있게 된다.

대선을 지르면서 경쟁자의 반목과 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에 과연 누가 선출될지 각 후보자들은 무조건 대통령만 되겠다고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약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이며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저명한 알렉시 드 토크빌은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권의 출속 도입이다”라고 했다. 공약과 말이 아니라 선거를 공약이 아니라 꼭 이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세우고 꼭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을 신중하게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유능한 정치, 개혁 세력인 첫 시민을 위한 첫, 정의로우 첫, 깨끗한 첫...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

있고, 이보다 3%였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

동산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겨우 6%에 불과하다. 현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도 임기내 중선선언을 끝내지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전 북핵 정전의 도발할 수 없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한국계 영감 의원들은 북한에 도발할 수 없는 비핵화 없이 중선선언이 공식 채택될 경우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자기편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의 약속은 이와 같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실현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화신이다. 진정한 사랑은 평소 동행하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쉬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짐을 져 주는 것이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보람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으자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중재되리라”(사 24:14)

불교계의 ‘캐럴송 캠페인’ 시비 너무 낮 설다

최근 불교계가 ‘캐럴송 캠페인’을 두고 대대적에 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조계종 총교무원회 원회는 성명을 내고, ‘캐럴 캠페인’은 다종교 사회에서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특정 종교를 위한 편향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냈다.

원주교와 기독교에서 자하는 성탄절에,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기쁜 성탄 캐럴송을 들려주는 캠페인’에 대하여 이렇듯 심각하게 반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

정말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불제자’라는 불교가 대지대(大慈大悲)의 가르침을 외면한단 말인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혹은 죽음에 직면해 있는가? 또 서민들은 파산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맞아 캐럴송을 통해 잠시라도 한 줄기 희망을 주자는 캐럴송 캠페인’을 가지고 사회를 개선 하 모습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전근대 종교라고 보기에

너무나 낮설게 느껴진다.

사실 캐럴송이라는 것도 모두 기독교의 복음을 담은 것은 아니다. 이 캐럴송으로 기독교나 천주교가 크게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불교계가 주장하는 비대로 200만 불자를 가진 큰 종교가 맞나?

불교계가 받은 온갖 해택은 문제가 안 되고 코리 비스텍 같은 성탄 캐럴 지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면,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조계종이 오는 16일 조계종 총교무원회 불교계국립대 재워위를 제정하라는 소집한다고 불교계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위로할 성탄 캐럴송을 더 문제 삼는다면 이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불교계는 다시 심사숙고하시고, 타종교의 고유 문화를 대상으로, 또는 국민들의 종교적 정서를 종교 편향으로 사비하며 다루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국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02)2677-9937

광고부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사이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www.clkf.h.kr

신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신청세계문화유산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청의 아름다운 깨끗한 환경과 신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신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완공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사지령의 증경회장, 한경원 목사와 고원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 B/온돌, 단체룸)



허준동(전통/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2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852-7004
- F A X : 062)8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a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우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평회 장학금, 목회지역사,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